

## 호남~제주 해저 고속철 수면위 급부상

광주·전남 국회의원·전문가들 국회서 합동토론회  
제주도 “제2공항 건설 시급 난개발 가속화” 우려  
전남도, 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건의 예정

한동안 잠잠했던 호남~제주간 해저고속철도 이슈가 수면 위로 급부상하고 있다. 광주·전남 정치권에서 해저고속철도사업을 공론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전남도 또한 해저고속철도를 내년 국가 도로계획에 반영시키기 위해 적극 나선다는 방침을 세워 귀추가 주목된다.

18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국회에서 호남고속철도(완도 경유) 제주 연장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는 이개호·김승남·조오섭·윤재갑 의원 등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 4명이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에서 강승필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국가기간 교통망과 호남~제주 고속철도 구축방안” 주제발표를 통해 “올

해 기준 3,500만명 이상 수송공급능력 제 공지역인 제주도는 항공연결만으로는 안정적 수송공급·안전성·경제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한계 교통수준에 도달했다”며 “기후안전 비용, 이용편리 추수송시간 감소 등을 위해서 육상교통 연결이 필요한 상황이다”고 주장했다.

호남고속철도(목포)~완도~제주 연장선 구축방안으로 강 교수는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의 동남 및 서남 내륙교통망의 균형적 구축을 강조했다.

동남내륙교통망 구축을 위한 경남내륙 고속철도(거제도 연결) 건설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사례를 들며 서남내륙교

통망인 호남-해남·완도-제주 고속철도 연장사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 교수는 해저고속철도가 완성되면 수도권 고속접근성 향상을 통해 일체형 국토교통권이 실현될 것으로 내다봤다.

문재인 정부의 신경제교통축 완성을 위한 한반도 전체 고속수송 체계 구축과 함께 대규모 국가수송 수요가 해결될 것으로 강 교수는 기대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7명의 패널은 해저 고속철도사업에 대해 열린 토론을 벌였다.

양길현 제주대 교수는 “제주 성산 제2공항 건립 여부를 두고 지난 5년간 치열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신공항 건립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서울-제주KTX를 건설해 국가운송망 체계를 열어가는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준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정책연구팀장은 “해저고속철도 사업은 존재하는 수요보다 유발수요가 훨씬 클 수 있는 사업으로 기존 교통사업의 투자는 리로는 분석할 수 없는 요소가 존재한다”며 “경제적 효율성 논리 이외에 안전이나 부가적인 사회경제적 가치를 계량화할 수 있는 투자 논리 개발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전남도는 해저터널을 통해 지역 활성화와 관광벨트 형성을 목표로 하고, 호남-제주 고속철도 건설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대내외에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목포-완도 구간을 1단계, 완도-제주 구간을 2단계 사업으로 구분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추진 중인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꾸준히 건의하겠다는

방침이다. 해저고속철도 사업에 적극적인 전남도와 달리 해당 지자체인 제주도의 반응은 미온적이다. 제주도는 제2공항 건설이 시급한 시점에서 연륙 교통수단은 검토대상 이 아니라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해저 터널 연결로 ‘섬’이라는 정체성을 잃고 난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부정적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전동호 전남도 건설교통국장은 “정부 예산규모와 제주도 반대해소를 위한 단계별 시행이 국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호남-제주 고속철도 연장사업은 길이 178km, 총사업비 16조8,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개발이다. 목포-해남-완도를 잇는 고속철도 개설 1단계 사업은 68.8km에 2조8,290억원이 소요된다.

/길용현 기자



18일 오후 광주 영주초등학교에 임시 마련된 선별진료소에서 학생, 교직원 등이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이날 전남대병원발 광주 확진자(585번)의 자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전교생을 대상으로 전수검사가 이뤄졌다. /김승훈 기자

## 광주·전남 병원들 잇따라 폐쇄 n차 감염 확산·의료공백 우려

의료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광주·전남 병원들이 잇따라 폐쇄됐다. 지역 거점병원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면서 면역력이 약한 환자들의 연쇄 감염과 일반환자들의 진료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18일 광주시와 전남도 등에 따르면 전남대병원 본원과 화산전남대병원, 목포기동병원, 순천 중앙병원에서 각각 의료진이 확진돼 일부 병동이 격리됐다. 광주에서는 전남대병원발 n차 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남대병원 7동 2층의 인터벤션실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가 코로나19에 확진돼 광주 588번 확진자로 분류됐다.

방역당국은 지난 13일 신경외과 전공의(광주 546번)가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다른 의료진과 환자, 병원 밖 n차 감염(연쇄 감염)으로 이어지자 지난 17일 오전부터 1동 병실 전체를 코호트(동일집단) 격리했다. 외래와 응급실 진료도 오는 22일까지 중단했다. 방역당국은 7동 건물에 대한 위험도 평가를 진행한 후 추

격리하고 있다. 전남대병원과 관련된 확진자의 초등생 자녀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영주초교 학생과 교사 등 725명에 대한 검사 조사가 실시됐다. 광주시는 19일 오후 1시 광주시청에서 2차 종합병원 이사회 회의를 개최, 전남대병원 환자 전원, 응급실 운영 등 의료공백 대책마련에 나선다. /황애란 기자

가 코호트 격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남대병원발 확진자는 광주 32명, 전남 10명, 경기 1명으로 누적 43명을 기록했다. 의사 5명, 간호사 4명, 환자 6명, 보호자 4명, 입주업체 2명, 방사선사 1명, 지인 21명이다.

화산전남대병원도 지난 14일 신경외과 병동 간호사(광주 549번)가 확진된 데 이어 이날 오전 혈액암·소아암 병동 간호사(전남 285번)가 확진되자 이들이 근무하는 7층과 6층 병동 일부를 폐쇄하고 환자들을 격리했다.

목포기동병원에서도 응급실 간호사 1명(전남 283번)이 확진되면서 응급실을 폐쇄하고 외래진료도 중단했다. 순천중앙병원도 병동 간호사 1명이 확진돼 일부 병동을 코호트 격리했다.

n차 감염도 이어지면서 지역에서는 광산경찰서 3층이 폐쇄됐고, 경찰관들이 117명이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 조치됐다. 광주 북구 오치동 한 성당도 전남대병원 연쇄감염이 발생해 일시 폐쇄 조치가 내려졌다.

전남대병원과 관련된 확진자의 초등생 자녀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영주초교 학생과 교사 등 725명에 대한 검사 조사가 실시됐다.

광주시는 19일 오후 1시 광주시청에서 2차 종합병원 이사회 회의를 개최, 전남대병원 환자 전원, 응급실 운영 등 의료공백 대책마련에 나선다. /황애란 기자

## 이용섭 시장, 국비확보 “바쁘다”

국회 의장·예결위원장·예결위원 등 릴레이 접촉

이용섭 광주시장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대한 국회심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18일 김중호 행정시장, 조인철 문화경제부시장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국비확보 총력전을 펼쳤다.

이 시장은 이날 국회방문에 앞서 기획재정부 안전고결 예산실장을 비롯한 예산심 의관들을 만나 지역 핵심사업 관련한 예산들을 설명하고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이어 국회를 방문해 박병석 의장과 정성호 예결위원장, 서동용·양향자 예결위원을 차례로 만나 시 주요 사업예산에 대한 국회중재를 요청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만나 예산확보와 지역현안 관련 법률개정에 관한 협조도 요구했다.

이 시장은 박병석 의장을 만나 ▲상생형 지역일자리 기반구축 및 정착지원 ▲친환경 공기산업 육성 기반 구축사업 ▲광주 운전면허시험장 신설 등 3개 사업 국비반영을 요청했다.

정성호예결위원장을 방문한 자리에서는 ▲RE100구현 에너지 AI통합 관제 구축사업 ▲AI직접단지 3대 주력 산업



분야 AI학습용 데이터셋 개발사업 ▲송정역사 증축 등 5개 사업에 대해 국비 증액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광주·전남 예결소위원회 서동용·양향자 의원을 찾아 ▲데이터기반 디지털페어 그린 제조 플랫폼 구축 ▲광주그린스타트업타운 조성 ▲국립 광주전통생 활음악단 건립 등 10개 사업에 대해 예결 위에서의 반영을 당부했다.

시는 국회단계 주요 증액사업인 35건 1,061억원에 대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증액·추가될 수 있도록 국회 의정단, 예결위원회, 지역 국회의원, 중앙부처 등과 협력해 최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시장은 “정의로운 역사를 지닌 광주가 풍요를 창출하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지난 2년간 다진 지역발전 인프라를 기반으로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 성과들을 창출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황애란 기자

August, 2020

# Forbes

광주 최초! 뉴욕 감성의  
첨단 비즈니스 지식산업센터

## IT, 벤처, 스타트업, 1인 기업 등 기업사옥으로 지식산업센터 인기!

### 히드슨 1041 첨단2지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첨단 지식산업 플랫폼  
광주 최초! 뉴욕 감성의 혁신 비즈니스 시대를 열다

- 분양금액의 최대 80%까지 장기저리융자 가능
- 취득세 50%, 재산세 37.5% 감면 등 세제혜택
- 최대 70억 한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 청년창업, 스타트업 등 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입주예정

[사업개요]  
※ 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1041번지 ※ 규모: 지하3층-지상15층  
※ 대지면적: 6,618,000㎡ ※ 용도: 지식산업센터(공공) 및 근린생활시설 기지지원시설  
※ 건축면적: 3,498,68㎡ ※ 연면적: 37,879,33㎡

지식산업센터 184실 | 근린생활시설 77실 |  
지산-창고 21실 | 운동 및 문화집회시설 37개소 |

모델하우스 오픈중  
T.372-6666

모델하우스: 광주 서구 마죽동 165-14